

K-식자재, 美 주력 시장 향해 땀 올렸다! 미국식자재유통협회(IFDA) 콘퍼런스에서 1,500명 현지 구매업체(바이어) 정조준

- 농식품부, 美 최대 식자재유통협회(IFDA) B2B 콘퍼런스에 ‘한국관’ 최초 운영, 사전 구매업체(바이어, 이하 ‘바이어’) 매칭부터 1:1 수출 상담, 후속 상담 등 밀착 지원
- 장류·소스류·냉동 간편식 등 현지 활용도 높은 식자재 앞세워 소비자 대상 거래(B2C, 이하 ‘B2C’) 넘어 기업 간 거래(B2B, 이하 ‘B2B’)로 K-푸드 최대 수출시장 적극 공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4일(월)부터 15일(화)까지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리는 ‘2026 미국식자재유통협회*(IFDA, 이하 ‘IFDA’) 콘퍼런스’에 참가한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 유통 기업 시스코(Sysco)를 비롯한 식자재 유통 관계자 1,500명이 참여하는 등 북미 B2B 시장의 키 플레이어(key player)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 IFDA 콘퍼런스(IFDA Solutions Conference) : 식품 유통 기술, 공급망(SCM),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다루는 미국 식자재유통협회 주관의 B2B 박람회

그간 K-푸드 수출이 주로 현지 마트, 소매점 등 B2C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행사는 식자재 유통사와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규모 B2B를 직접 공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농식품부는 한국식자재유통협회(KFDA)와 함께 한국관 부스를 마련하여 우리 식자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규 유통채널 확보에 나선다.

이번 한국관에는 북미 B2B 시장에서 활용도와 경쟁력이 높은 장류·소스류 및 간편식(냉동만두 등) 수출기업 6개사*가 참여한다. 한국관 안에는 ‘K-푸드 정품 홍보관’, 공동 조리공간, 비즈니스 라운지를 조성하여 K-푸드 홍보, 시식·시음, 수출 상담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

* (수출기업) 농심 태경, 동원 F&B, 삼성 웰스토리, CJ 프레시웨이, 풀무원, 한미 F3

현장에서는 K-소스, 냉동 만두 등을 바이어가 직접 시식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제품이 현지 급식 및 외식 메뉴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조리법과 공급 모델을 함께 제시한다. 바이어가 K-식자재의 대량 보관 편의성, 유통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사 유통망에 원활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번 콘퍼런스 참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현장-사후로 이어지는 전 주기 밀착 수출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행사에 앞서 바이어별 관심 품목과 수요를 분석해 국내 업체와의 1:1 매칭을 진행했으며, 현장에서는 심도 있는 수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식자재 유통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소스와 간편식을 비롯해 미국 시장에서 인기 있는 K-푸드를 직접 맛보고, 수출기업들과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K-식자재가 가진 경쟁력과 미국 시장에서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행사 이후에도 견본품 발송, 온라인 상담 등 K-식자재 수출거래 성사를 위한 후속 지원을 적극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콘퍼런스에서 수집된 북미 식자재 유통 및 공급망 특성, 채널별 바이어 정보 등은 향후 K-식자재의 대미(對美) B2B 수출 확대 전략 수립에 핵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K-식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연계하여 국내 식당에서의 K-식자재 소비를 늘리기 위한 ‘K-푸드 데이’를 운영하는 등 지속 가능한 대규모 수요처 발굴을 위해 관계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K-푸드가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글로벌 주류 식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급식·외식 등 대규모 소비로 이어지는 식자재 유통망 공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우수한 K-식자재가 글로벌 B2B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바이어 발굴,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김정락 (044-201-2171)
		담당자	사무관	최미루 (044-201-2174)

